

영암군, 갈등 야기 사업 인허가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축사 등 조례 개정 추진...업계·농민회 등 찬반 엇갈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축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이들 시설의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인허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또 발전시설 허가 요건을 제약받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현재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상향했다.

주거밀집지역 기준으로 10호에서 5호로 확대했다. 5호 이상일 경우 이격거리를 500m 이내, 5호 미만은 100m 이내로 구분해 발전소의 건설을 제한했다.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진동, 산사태 우려 등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물론 학교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정온시설,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하고, 공작물의 최상단까지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축사 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강화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 된 토지에는 축사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축사의 부대시

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등 일부는 가능하다.

이 같은 영암군의 강화된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건설과 축사 신축이 어려운 개정 조례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군의회와 농민회 등에서는 더욱 더 강화된 조례를 요구하면서 27일 개최하는 임시회 상정 여부를 군의회의 심의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조례안은 발전시설과 축사 등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우량농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임시회 개최 전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비대면 진도 바닷길 축제서 송가인 모창하고 경품 받자

군, 오늘~29일 다양한 이벤트

진도군이 27일부터 29일까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개최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 해로 42회째를 맞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전면 취소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바닷길이 열리는 현장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 촬영, 뽕할머니 제례와 진도북놀이 등 진도만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는 물론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도 와썴라-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억 소환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과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방문했던 추억의 인증샷 사진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진도 특산품을 제공한다.

생중계 되는 진도군 유튜브에 '좋아요와 실시간 댓글' 참여자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전달한다.

'도전! 온라인 퀴즈 열정'이란 주제로 온라인 축제 기간에 매일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진도군에 관한 퀴즈를 맞춘 50명에게는 진도 특산물 2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또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 아리랑몰'과 연계한 정정진도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도 예정돼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바다공원서 만나는 소자연 분재

무안황토갯벌랜드, 11월까지 130여 점 전시

무안군이 4월부터 11월까지 '바다공원에서 만나는 소자연'이라는 주제로 무안황토갯벌랜드 내 분재전시관 공원에 야외전시를 실시한다.

지역출신인 고(故) 문형열 용이 기증한 분재 작품, 각종분재도구와 자료 1000점을 전시하기 위해 2018년 개관한 분재테마전시관에는 분재의 역사, 모양 잡는 법, 분재 도구와 함께 세월을 품은 멋진 분재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군은 봄을 맞아 겨울 동안 차가운 바다바람을 피해 온실내 보관 중이던 130여점의 분재를 야외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끝없이 펼쳐진 무안 청정 갯벌을 바라보며 오랜 기간 압축된 세월을 간직한 주목나무, 백일홍, 소사나무, 소나무, 치자나무가 담아내는 자연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무안황토갯벌랜드가 자연의 운치를 느끼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체류형 생태체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무안황토갯벌랜드 내 분재전시관 공원.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 지원사업 개념도



신안 '스마트 낙지 조업' 본격 지원

정부 스마트블리지 공모사업 선정 갯벌 어장 드론 기반 자원량 산정 원격 센서로 환경변화 모니터링

신안군이 갯벌어장 스마트 낙지 조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2021년 스마트블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도요면 갯벌어장을 대상으로 전통 어업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해 지역민 스스로가 낙지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량을 증대할 방안과 지역 현

안 해결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업체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신안군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갯벌어장 드론기반 낙지 자원량 산정, 불법 조업 감시·알람 서비스, 원격 센서를 통한 갯벌 환경변화 모니터링 연계 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4차 산업혁명기술 혜택을 여촌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 하려고 한다"며 "어촌 인구감소·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소득감소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대한민국 공공홍보 대상' 수상

목포시가 최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홍보 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광고홍보학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내 저명한 홍보 전문가들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홍보와 소통을 평가해 가장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시상했다. <사진>

시는 지난 2019년 1월 지자체 중 최초 미디어 전담팀을 만들어 ▲방송 및 영화 등 윈스톱 촬영 지원과 적극적 대처로 촬영 관계자 만족도 향상 및 편의 제공 ▲프로그램 유치 및 효율적인 제작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홍보 및 바이럴 영상



활용 및 저예산 해외 홍보 ▲미디어 관계자와 꾸준한 소통을 통한 최신 트렌드 선점과 다양한 홍보 채널 구축 등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기반을 조성해 체계적으로 국내·외 홍보를 추진하겠다"면서 "타깃형, 양방향, 참여형 홍보 마케팅을 접목해 새로운 방법으로 목포 관광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중배 기자 pjb@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